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 다큐 〈아이 러즈 코리아〉	3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05 좋은 아침 플러스 원 3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감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인간극장 스페셜 〈청옥씨 힘내세요〉(재)	11	00 주말연속극 〈잘했군, 잘했어〉(재)	00 현장리포트 사람세상(재)
00 KBS 뉴스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희망특강 파랑새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해신〉(재)	30 무한지대 스페셜	1	35 통일전망대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KBS 스페셜	10 KBS 네트워크-춘천	2	15 희망나눔 무지개	00 SBS 뉴스 10 NEW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세계(재)
30 풍경이 있는 여행	00 2TV 스페셜 1 대100(재)	3	05 앙코르 MBC 프라임 〈아주 특별한 뮤지컬, 꿈의 외투〉	0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니파니	10 꼬꼬마 꿈동산(재) 40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먹티와 잼잼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비타민〉(재)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테마스페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50 MBC 뉴스	25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겨루기	10 무한지대	7	00 TV 전국기행 〈맛이 보인다〉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터치 따따부따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밥 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TV로펌 솔로몬
00 KBS 뉴스 9	00 위기탈출 넘버원 55 월화미니시리즈 〈결혼 못하는 남자〉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대하사극 〈자명고〉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라인 30 역사추적	05 미녀들의 수다	11	10 문화콘서트 난장	05 야심만만 2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K리그	15 생방송 시사 360 55 한국 한국인	12	20 MBC 뉴스 24 35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 리뷰	15 나이트 라인 45 씨네포트(재)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6:30 세계테마기행 〈동유럽의 교차로, 루마니아〉
07:10 리틀 프린세스
07:25 신기한 스쿨버스
07:50 칙칙폭폭 처깅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08:30 달려라 카카
08:40 달려라! 도라라
08:50 깨미랑 부카채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몰리와 나
09:35 또또바를 찾아라
09:45 치로와 친구들
10:00 60분-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30 다큐 프라임
12:20 EBS CEO 특강
13:10 요리비전(秘傳) 〈놀이의 미학, 무주 어죽〉
13:40 문학사랑
13:45 똑똑! 영어놀이터
14:05 치로와 친구들
14:20 빼꼼 시즌2
14:30 워드 월드
14:55 또또바를 찾아라(재)
15:05 방귀대장 뿡뿡이(재)
15:20 알록달록 콩콩이
15:35 달려라! 도라라(재)
15:45 깨미랑 부카채카(재)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리틀 프린세스(재)
16:30 페넬로페, 뭐 할까?(재)
16:35 칙칙폭폭 처깅턴(재)
16:45 빨강머리앤
17:10 워드 월드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빼꼼 시즌2
19:00 스톰 호크
19:25 이상한 나라의 폴
19:50 공룡캠프의 비밀
20:15 우당탕 마을
20:20 EBS 창사기획 특집 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21:30 창사특집〈생방송〉EBS 뉴스
21:45 지식채널 e
21:50 다큐프라임 창사기획-한반도의 인류
22:40 요리비전(秘傳)
23:10 다큐 10 +
00:00 지식채널 e
00:05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수학 I〉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08:40 〃 〈과학〉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35 TV로 보는 박물관
09:40 EBS 수능 플러스 〈언어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내신 6감〈국어(상)〉
12:50 〃 〈물리〉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국어(상)〉
14:30 〃 〈과학〉
15:20 EBS 탐스런(재) 〈한국근현대사〉
16:10 〃 〈물리 I〉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한국근현대사〉
17:50 EBS 학습자료실〈과학사〉
18:00 EBS 포스(재)〈고전문학〉
19:00 〃 〈수학 I〉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물리 I〉
21:00 〃 〈일본어〉
21:50 EBS 수능플러스(재) 〈언어영역〉
23: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언어영역〉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학 1학년〈국어〉
08:40 〃 〈수학 1-1〉
09: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국어〉
10:00 방귀대장 뿡뿡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또또바를 찾아라
11:00 요리조리팡팡
12:00 EBS TV 중학 2학년〈국어〉
12:40 〃 〈수학 8-가〉
13:20 EBS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국어〉
14:00 EBS TV 중학 2학년〈도덕〉
15:30 2009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이론편(재)
16:00 10급공무원시험대비강좌(재)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EBS 초등 친절한 선생님 〈국어 3-1〉
17:30 〃 〈국어 4-1〉
18:00 〃 〈국어 5-1〉
18:30 〃 〈국어 6-1〉
19:00 EBS TV 중학 1학년(재) 〈국어〉
19:40 〃 〈수학 1-1〉
20: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국어〉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국어〉

‘세친구’가 ‘세남자’로 돌아왔다

윤다훈·박상면·정웅인, 케이블 tvN 다큐 드라마서 8년만에 호흡

8년 만에 재결합하는 윤다훈(45), 박상면(41), 정웅인(38)은 과연 어떤 웃음을 선사할까.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MBC TV를 통해 방송돼 인기를 모은 성인 시트콤 ‘세친구’가 내달 18일 시작하는 케이블채널 tvN 다큐 드라마 ‘세남자’로 이어진다.

방송사가 다르기 때문에 tvN은 ‘세남자’와 ‘세친구’를 연관짓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만, 주인공 3인방이 같고 30대 남자들의 일상을 웃음 코드로 버무린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세친구’를 기획하고 연출했던 송창의(56) PD가 현재 tvN의 대표다. ‘세남자’는 시트콤이 아니라 다큐드라마를 표방한다.

tvN은 ‘세남자’에 대해 시즌5까지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다큐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의 남성 버전이라고 설명한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투박한 화면에, 내용에서는 리얼리티를 강화한다는 것.

8년 전 31세 동갑내기 싱글남으로 출연했던 윤다훈, 박상면, 정웅인은 이제 마흔을 바라보며 청년과 중년 사이에 낀 ‘낀 세대’를 연기한다.

제작진은 “혈기왕성한 20대에게 위기를 느끼지만 아직 ‘아저씨’ 소리를 듣기는 싫은 30대를 위한 드라마”라고 밝혔다.

‘세친구’에서 결벽증이 있는 정신과 의사를 연기했던 정웅인은 이번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연기한다. 또 ‘세친구’에서 누나인 반효정에게 얹혀살던 순진하고 다소 모자란 백수를 연기했던 박상면은 공처가가 되고, 윤다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람둥이 캐릭터지만 이번에는 이혼 경력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달 말 촬영을 시작하는 ‘세남자’는 ‘세친구’의 극본을 담당했던 목연희, 한설희 작가와 당시 연출진이었던 정환석 PD가 연출을 맡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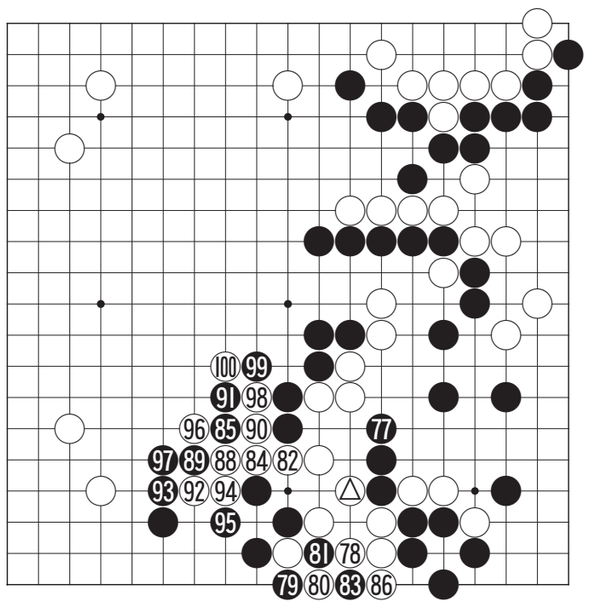
〈윤다훈〉 〈정웅인〉 〈박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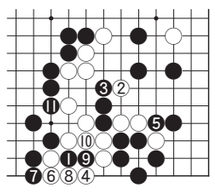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팻감이 없다’

2회전 5보 (77~100)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강행옥 5단 〈변호사회〉




〈참고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박광주 5단이 백 △로 가장 어려운 수를 찾아냈다. 이 수 외에 다른 수는 너무도 쉽게 백 대마가 잡히고 마는 것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강행옥 5단은 조심스럽게 흑 77로 늘었는데 이 수가 약한 수로 백 대마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한점을 끊는 것이 강수. 백 2로 씌워봐야 흑 3으로 그만이고 백은 4로 패를 노리는 정도인데 5로 받아서 11까지 사는 수가 없었다.

흑 77로 늦추는 바람에 백 78로 두어 천지대패가 발생했다. 원래 대마가 갇히면 살자는 팻감이 많은 것이 보통인데 어쩐 일인지 백에게는 팻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불운이었다. 박광주 5단은 고민 끝에 유일한 탈출구인 백 82로 패를 썼는데 강행옥 5단이 불문곡직하고 패를 해소해 버리자 이제는 탈출할 수 있느냐가 승부가 되었다. 과연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음 5월 30일 戊戌)

子 36년생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48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60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야 수하가 따른다. 72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4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행운의 숫자 : 03,43

丑 37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49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61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하라. 73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85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26

寅 38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5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62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한다.74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23

卯 39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라. 51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3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7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28

辰 40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64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76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18,40

巳 41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53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65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7년생 불 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행운의 숫자 : 32,44

午 42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54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66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된다. 78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행운의 숫자 : 09,39

未 43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5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67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9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행운의 숫자 : 10,30

申 44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56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68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0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6,02

酉 45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57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9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81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22,42

戌 46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70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82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행운의 숫자 : 24,45

亥 47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9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71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83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34,3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330>

Don’t count on that.

꿈 깨세요

A : Are you going to go to the game?
B : No. I’m going to Mary’s house.
A : You should bring her. It’s going to be a good game.
B : Don’t count on that. Last time we lost by 30points.

A : 그 경기 보러 갈 거지?
B : 아니, 난 매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A : 그 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걸. 분명 재미있는 경기일거야.
B : 그런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을 걸. 지난 번 30점차로 우리가 졌잖아.

* be going to (go)~ =~에 갈 작정이야
* It’s going to~ = 아마 ~일 걸
* count on ~= ~을 믿다
* by+ 숫자 = ~차이로, ~만큼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330>

圖書館の中で携帶をかけてもいいですか

도서관 안에서 휴대폰을 걸어도 좋습니까

A : 圖書館の中で携帶をかけてもいいですか。
B : いいえ、(かけては)いけません。
A : 食べ物は食べてもいいですか。
B : いいえ、食べ物も(食べては)いけません。
A : それでは、ここにあるコンピュータは使ってもいいですか。
B : はい、コンピュータは(使っても)いいです。

A : 도서관 안에서 휴대폰을 걸어도 좋습니까.
B : 아니오, (걸어서는)안됩니다.
A : 음식물은 먹어도 좋습니까.
B : 아니오, 음식물도 (먹어서는)안됩니다.
A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는 사용해도 좋습니까.
B : 예, 컴퓨터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携帶をかける(けいたいをかける ; 휴대폰을 걸다)
コンピュータ(콤퓨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07>

古裝劇

사극

A : 你喜欢看古装剧吗?
nǐ xǐhuan kàn gǔzhuāngjù ma
(니 시후안 칸 구좡쥐 마)
B : 喜欢。我特别喜欢看古装剧。
xǐhuan. wǒ tèbié xǐhuan kàn gǔzhuāngjù
(시후안. 워 터비에 시후안 칸 구좡쥐)
A : 是吗? 我听说最近在香港有一股长今热。
shì ma. wǒ tīngshuō zuìjìn zài xiānggǎng yǒu yì gǔ chángjīnrè
(스 마. 워 팅슈어 쭈이진 짜이 시앙강 요우 이구 창진러)
B : 我也是长今迷。
wǒ yě shì chángjīnmí
(워 예 스 창진미)

A: 너 드라마 좋아하니?
B: 좋아하지, 특히 사극을 좋아해.
A: 그래? 요즘 홍콩에서는 장금이가 뜨거운데.
B: 나도 장금이 팬이야.

[illegible]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1047>

吐哺握髮(토포악발)

토할 토, 먹을 포, 잡을 악, 터럭 발

토포악발(吐哺握發)은 식사 때 손님이 찾아오면 입 속에 있는 밥을 뱉고, 머리 감을 때는 감던 머리카락을 움켜쥔다는 뜻으로, 극진하게 손님을 영접함을 비유한다. 특히 군주가 어진 인재(人材)에 대해 예의(禮儀)를 갖춤을 비유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편안함 없는 바쁜 모습을 비유한다.

공자(孔子)가 가장 존경했던 주공(周公)은 주(周)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동생이었지만, 무왕이 질병으로 죽자 나이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위하여 섭정(攝政)을 하면서 주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주공은 주왕실의 일족과 공신들을 중원(中原)의 요지에 배치하여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封建制)를 실시하여 주왕실의 수비를 굳건히 하였다. 특히 자신의 봉지(封地)인 노(魯)나라 땅으로 아들 백금(伯禽)이 떠날 때, 주공이 말하길, “나는 한 번 씻을 때 세 번 머리를 거머쥐고[一沐三握髮], 한 번 먹을 때 세 번 음식을 뱉으면서[一飯三吐哺]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였다. 즉 정무(政務)를 살핌에 잠시도 소홀하지 않을 것과,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韓時外傳)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